

어르신 행복도시 건설 '가속 페달' 밟는다

임실군, 10명 중 3명 '노인' 노인 복지 최우선 효심행정 치매교실·센터 건립 등 복지·의료정책 성과 뚜렷

실수 중심의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효심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임실군이 '어르신 행복도시'로 안착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31.5%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의 고민을 떠안고 출범한 민선6기 심민 호는 노인복지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놓고 다방면에 걸친 '효심행정'을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발 앞 선 의료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어르신과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치매 교실' 시리즈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우수한 평가와 함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



임실군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효심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어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고 있다. 먼저 '찾아가는 한의학 치매예방 교실'은 방문간호사, 치매관리사, 한의사가 읍·면 경로당을 순회한다. 지난해는 12개 마을 5회, 올해는 6개 마을 5회를 돌며 중증예방교육부터 1:1상담, 비만도 측정, 체질 개선, 침·뜸 시술, 한약 처방 등의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치매교실, 두뇌 튼튼 찾아가는 체조교실'은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찾아 치매예방체조와 우울증 예방, 치매 초기 발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건강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치매 관련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기관 및 주민 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은 치매 고 위험 군과 치매환자 인지능력 향

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방문간호사, 치매관리사 등 8명이 방문해 1:1 상담, 뇌운동 및 작업치료, 혈압·당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도 동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한 노인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12억2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 등을 포함해 16억8천만원을 투입, 300평 부지에 3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나선다.

치매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등 관련 질환을 집중 치료할 수 있어 현재 치료 중인 치매환자 576명과 치매가 의심되는 180여명 등 760여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치매는 조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 우호적인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며 "어르신 행복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총 8회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 정신행동증상과 치매위험요인, 치매진단 및 치료와 관리, 의사소통습득 및 응급 교육을 비롯해 가족 상호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치매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등을 위한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12억2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 등을 포함해 16억8천만원을 투입, 300평 부지에 3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나선다.

치매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등 관련 질환을 집중 치료할 수 있어 현재 치료 중인 치매환자 576명과 치매가 의심되는 180여명 등 760여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치매는 조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 우호적인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며 "어르신 행복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시 행정처분·검찰 송치

순창군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7일 공장등록한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부서에서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 반을 투입하여 공장등록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와 이를 사업장 주변으로 무단방류한 흔적 등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단속한 결과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군 환경지도계장(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향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적발시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대만시장 정조준

타이베이국제여행전 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만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 본부장 문용수)은 지난 9월 일본 여행시장 공략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타이베이국제여행전(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 2017, 이하 박람회)의 한국관에 참가하여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와의 세일즈콜 및 부스 내방객들에게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합은 지리산권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방관광인 만큼 근거리의 아시아 시장부터 개척해 나간다는 초기 전략에 따른 것으로 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툴을 통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대만시장은 2013년 처음 박람회에 참가하며 공략을 시작했으며,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리산권 답사투어와 지속적인 자료제공 등 관리를 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타이베이국제여행전'의 한국관에 참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오고 있다. 그 성과로 2014년부터 현지 대형여행사인 라이온투어를 비롯한 3개 여행사에서 지리산권을 경유하는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등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은 이번 박람회에서 2017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체험중심의 볼거리, 먹거리, 디저트, 트래킹, 템플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당일 및 1박2일 옵션투어와 계절별 여행 코스를 중점

적으로 어필했다. 타오위엔에서 박람회장의 지리산권 부스를 일부러 찾아온 산푸여행사의 담당자는 "한국여행을 원하는 관광객들 중에는 지금까지 기본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외 색다른 여행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관광 상품을 만들고 싶는데, 지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엮으면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남원=유영철 기자

다문화가정 모국나들이 '웃음꽃'

순창경찰서 행사 성료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지난 29일 2017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단 운영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모국방문행사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1가정을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 경찰관, 보안협력위원이 동행 친정을 방문하여 가족친지간치를 열어주고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증정하는 행사이다. 모국방문의 영광을 안게 된 이주

여성은 순창군 동계면에 거주하는 귀(36, 중국)모씨로 우리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이주여성으로 모범이 돼 올해 모국방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하얼빈 방정현 고향에서 진행된 모국방문행사는 경찰관 4명과 보안협력위원 7명이 함께 모국방문길에 올라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일섭 서장은 "앞으로도 순창지역 다문화이주여성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해단식

임실군 옥정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가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며, 올해 활동을 마쳤다.

30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지난 7개월간 옥정호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차량 세차행위, 불법 낚시행위, 오토 투기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질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꾸준한 정화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남원, 내년 상반기 공사 추진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노암사거리는 지난 4월에 완료된 회전교차로 기본계획의 투자우선순위 1순위 장소로 시간당 최대 교통량 1,200대이며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차량 통행이 지체되어 왔으며, 또한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최근 3년간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시는 노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국비·도비) 확보를 추진하던 중 이용호 지역국회의원이 도비 2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남원시에서도 시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 되면 일반 사거리 신호등 교차로와 비교해 진입속도가 40% 가까이 줄고 차량 간,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할 수 있는 지점이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예방 되고, 통행 차질이 많아 신호대기로 인한 정체 및 지체시간 감소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IMSEOL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